

제목: "청년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말씀: 시편 110편 1-4절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젊음을 잃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젊음은 육신의 젊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젊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알게 하십니다. 어떠한 젊음의 모습입니까?

1. _____ 옷을 입은 모습입니다.
2. 즐거이 _____ 하는 모습입니다.
3. 주께로 _____ 모습입니다.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혁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현지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감사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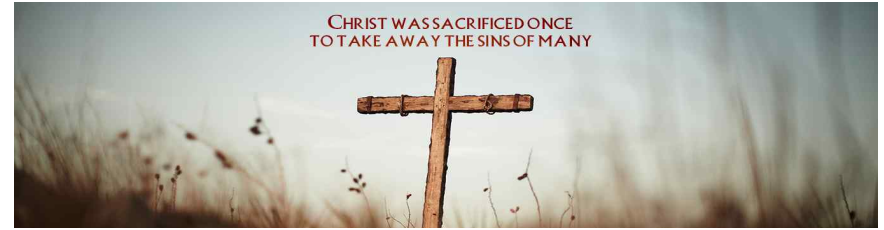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2절)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Hebrews 12: 1-2)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시편 110편 1-4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Palms 110:1-4절 구약 886 페이지 Presider
- 말씀 "청년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김성민 목사
 Message A Youthful Dedication of Belivers Rev. Kim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주님은 영광의 왕 다같이
 Praise and Prayer All Together
- * 축도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당: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아직도 청년입니다)

나에게 청년 시절은 지금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생활에서부터 교회 생활까지 어려웠던 일보다는 즐겁고 활발했던 일들이 더 많이 생각한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이민을 와서 이제 조금 익숙하게 된 생활을 토대로 여기저기를 다니며 어른이 되어가던 때였다. 그 중에서 교회 생활은 나에게 중심이었다. 아무리 고단한 토요일을 보냈어도 주일예배를 드리고 성경공부를 참석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다. 지금 생각하면 별일도 아닌 것을 큰일과 같이 여기면서 기도하던 때도 있었고, 그리 새롭지 않았던 찬양 한곡을 불러도 눈물로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을 했던 때였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었고 그 부르심에 온 인생을 드리우고자 헌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역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준비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 줄은 미처 몰랐다. 그런데 실은 지금도 늘 준비하고 있지만, 그 당시 적어도 10년이라는 시간을 공부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다음 단계를 기다렸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 나는 가정을 갖게 되었고 목사라는 직분도 얻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청년시절이라는 기간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이다. 그리고 청년 시절에 나의 가슴에 있었던 일들을 위하여 지금도 숨 쉬고 그 당시 준비한 것들을 토대로 일하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는 주름이 생기고 힘은 이전과 같지 않지만 마음에 중심은 청년과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이를 물어보면 육신의 나이와 마음에 나이가 다르다고 이야기 할 것이다. 가슴에는 청년이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느니라” (시편 103편 4-5절)라고 말씀하신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육신의 나이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늘 새롭게 부여하시는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매일이 청년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 마음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같이 타올라야 한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은혜와 불러주신 부르심으로 타오르는 것이다. 육신의 나이를 자랑하지도 낙심하지도 말고 오직 매일 부여하시는 그 총만함인 인생의 모든 부분을 청년과 같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우리 모두는 과정 중이다. 천국으로 가는 청년의 시간이다. 어른도 없고 늙은이도 없다. 늘 새롭게 부여하시는 은혜가 우리는 새롭게 또한 청년에서 더 이상 늙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청년들이 교회에 모이니 교회는 늘 뜨겁게 불타오르는 곳이 되고 만다. 예배가 그렇게 뜨거워지고 기도가 불타오르며 찬양이 총만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청년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모습으로든 늙은이 행세를 그만하고 푸르고 새로운 헌신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성도의 모습이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자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개척교회에 새로이 세례 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김인선 선교사:	니카라과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 개척과 학교)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5월호)

생명의 삶 5월호가 도착했습니다. 한권씩 가지고 가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5. 5/6월 행사

5월 15일 (주)	청년 주일
6월 5일 (주)	성령 강림 주일

5.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